

# 광주産 ‘스포티지’, 기아 사상 최대 판매 ‘견인’

작년 58만여대 글로벌 최다 판매 총 309만대...1962년 이후 최대 지역생산 ‘셀토스’도 31만대 팔려 “불황속 광주경제 효자노릇 특독”

기아 오토랜드 광주에서 생산되는 스포티지, 셀토스가 지난해 기아의 역대 최대 연간 판매 실적 달성을 견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기아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54만 10대, 해외 254만3361대, 특수 6086대 등 308만9457대를 판매했다. 이는 기아가 1962년 자동차 판매를 시작한 이래 사상 최대 연간 판매 실적이다.

지난해 글로벌 시장에서 가장 많이 판매된 차량은 스포티지로 58만7717대가 판매됐으며 셀토스가 31만2246대, 쏘렌토가 28만705대로 뒤를 이었다. 국내에서는 쏘렌토 9만4538대, 카니발 8만 2748대, 스포티지 7만4255대 등 순으로 가장 많이 판매됐다.

세계적인 사랑을 받고 있는 스포티지는



지난해 기아가 역대 최대 연간 판매 실적을 달성한 가운데 광주공장이 생산하는 스포티지, 셀토스가 국내외 판매량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지난해 11월 출시된 ‘더 뉴 스포티지’의 모습. 기아제공

광주공장, 슬로바키아공장, 중국공장에서 생산되고 있다. 슬로바키아공장산 스포티지는 유럽, 중국공장산은 중국 내에서만 판매되고 있어 광주공장산 스포티지가 북미를 중심으로 전세계 수출을 담당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광주공장에서 생산된 스포티지 21만610대 중 13만5367여대

(64.2%)가 수출됐다. 광주산 스포티지는 지난 2004년 8월 광주2공장에서 첫 생산을 시작, 지난해까지 누적 320만대를 기록했다.

사회 초년생의 인생 첫차부터 넉넉한 내부 공간으로 패밀리카까지 전 세대의 사랑을 받고 있는 스포티지는 기아의 대표 준중형 SUV로 위상을 높이고 있다.

2024년 광주2공장에서 ‘뉴스포티지’를 처음 생산하고 이후 2010년 ‘스포티지 R’, 2015년 ‘The SUV 스포티지’, 2021년 5세대 ‘더 올 뉴 스포티지’가 생산되는 등 신형 모델이 꾸준히 출시되고 있다. 지난해 11월에는 기아 최신 디자인 정체성을 반영하고 8단 자동변속기가 탑재된 상품성 개선 모델인 ‘더 뉴 스포티지’를 출시

했다. 셀토스는 지난 2019년 광주공장에서 첫 생산 출시된 후 우수한 상품성으로 소형 SUV 시장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해외서 19만3887대가 판매된 가운데 셀토스가 1만6609대로 스포티지(3만6365대)에 이어 두번째로 가장 많이 판매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난해 광주공장에서 생산된 셀토스 15만9965대 중 9만7011대(60.6%)가 해외로 수출되는 등 스포티지와 함께 기아의 효자 차종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셀토스는 2019년 광주공장에서 첫 생산된 후 지난 2022년 페이스리프트 모델이 출시됐으며 이후 지난해 7월 2년만에 풀체인지 모델인 ‘더 2025 셀토스’를 출시했다.

광주에서 생산되는 스포티지와 셀토스가 국내외 소비자들에게 꾸준히 선택 받으며 기아 역대 최대 연간판매 실적 달성에 기여하는 등 기아가 광주경제 기동 역할을 해내고 있음을 증명하고 있다.

박소영 기자 soyeong.park@jnilbo.com

## 광주·전남, 12월 주식 거래대금 4740억 감소

비상계엄 선포 사태 여파 매수·매도거래 대금 급감

비상계엄 선포 사태 여파 등으로 지난해 12월 광주·전남 지역 주식 매수·매도거래 대금이 두 자릿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한국거래소 광주혁신성장센터가 ‘2024년 12월 광주·전남지역 증시 동향’을 분석한 결과 코스닥과 코스피를 더한 주식 매수거래 대금은 2조5815억원으로 전월(3조555억원)대비 15.51%(4740억원) 감소했다.

매도거래 대금은 2조5932억원으로 전월(3조228억)보다 14.21%(4296억원) 줄었다.

전체 대비 광주·전남 투자자의 매수거래 대금과 매도거래 대금 비중은 0.69%로 전월보다 각각 0.02%포인트, 0.01%포인트 감소했다.

지역 투자자의 주요 거래 종목 중 코스피는 ‘삼성전자’, ‘KODEX CD금리액티브(합성)’ 등의 매수·매도가 활발했고, 코스닥은 ‘알테오젠’, ‘루닛’ 등이 매수와 매도를 이끌었다.

코스피와 코스닥을 더한 광주·전남지역 상장법인의 12월 시가총액은 19조3536억원으로 전월(21조9814억원)대비 11.95%(2조6278억원) 감소했다.

시가총액 증감액 주요 종목 중 코스피는 ‘금호에이치티(160억원, 13.66%)’, ‘DSR제강(32억원, 6.65%)’ 등은 증가했고, ‘한국전력(-2조4716억원, -

16.11%)’, ‘한전KPS(-1238억원, -5.87%)’ 등은 감소했다.

코스닥은 ‘에스오에스랩(727억원, 43.86%)’, ‘한국첨단소재(263억, 166.38%)’ 등은 늘었고, ‘박셀바이오(-637억원, -20.98%)’, ‘에니젠(-123억원, -14.87%)’ 등은 줄어든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거래소 광주혁신성장센터 관계자는 “지난해 광주·전남 증시도 12월 초 계약령 선포 이후 정치적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코스피가 하락한 데 이어 미국 FOMC(연방공개시장위원회)에서 연준 의장의 추가 금리 인하에 대한 매파적 발언 이후 원화 약세폭이 확대되면서 하락세가 이어졌다”고 분석했다.

최권범 기자



삼성전자, CES서 ‘Home AI’ 제시 삼성전자는 ‘스마트싱스’를 통한 기기 연결 경험 전반에 AI 기술을 통합해 사용자의 필요에 맞춰 초개인화된 맞춤형 경험을 제공하는 ‘Home AI’ 비전을 공개했다. 지난 6일(현지시각) 삼성전자는 미국 라스베이거스 만달레이 베이 호텔에서 ‘모두를 위한 AI: 경험과 혁신의 확장’이라는 주제로 ‘CES 2025 삼성 프레스 콘퍼런스’를 열었다. ‘Home AI’는 가족 구성원의 일상 생활은 물론 업무와 여가 등 다양한 상황과 패턴을 구분하고 이해할 뿐만 아니라, 공간 시를 통해 집안 사물과 공간까지 분석해 사용자에게 한층 고도화된 솔루션을 제안한다. 삼성전자 제공

## 광주신세계, 설 선물세트 본판매 돌입

프리미엄·가성비 ‘다채’

광주신세계는 오는 10일부터 27일까지 설 선물 세트 본판매에 돌입한다고 8일 밝혔다. 지하1층 식품매장에서는 올해 ‘2025 광주신세계 설맞이’를 주제로 프리미엄 기프트부터 가성비비를 챙긴 다양한 가격대의 실속 기프트까지 다채로운 선물 세트를 선보인다.

프리미엄 기프트는 최상급의 제품으로 특별하게 준비했다. ‘한우비 프리미엄 한우 스페셜’은 국내산 한우 1++등급의 7가지 부위로 세트를 구성했으며, 가격은 200만원이다.

맥칼란 장인들의 최상급 원액으로 탄생한 프리미엄 싱글몰트 위스키인 ‘맥칼란 디캔더 2022 릴리즈’는 1197만2000원이다. 전설의 와인으로 불리며, 세계적인 품질을 인정받는 프르를 와인인 ‘페트뤼스 2017’은 1575만원이다.



광주신세계가 10일부터 27일까지 설 선물 세트 본판매에 돌입한다. ‘2025 광주신세계 설맞이’를 주제로 프리미엄 기프트부터 가성비비를 챙긴 다양한 가격대의 실속 기프트까지 다채로운 선물세트를 선보인다. 광주신세계 제공

건강기능식품도 더욱 특별하게 준비했다. ‘정관장 홍삼 전삼 20지’는 360만원, ‘정관장 황진단전 노블라인’은 160만원이다.

10만원 이하부터 10만원대, 20만원대

등 가격대별 기프트도 다양하게 마련했다.

대표제품으로는 ‘샤인머스켓, 사과혼합’ 8만5000원, ‘신세계 암소 한우 행복’ 16만0000원, ‘셀렉트팜 사과, 배, 혼합만복’ 23만원이다.

이밖에도 산지 직송으로 고품격 한우를 만날 수 있는 ‘한우비 산지 알뜰세트 6호’는 등심로스 600g, 안심로스 600g로 구성됐으며 23만원이다.

청과는 현지바이어 제도를 활용한 ‘셀렉트팜 사과, 배, 샤인, 민감류’로 19만원, 수산은 활전복 12미로 구성된 ‘참전복 세트’ 10만원, 갈치 1.8kg 5미 ‘신세계 은갈치 세트’ 18만원 등이다.

이밖에도 부담없이 선물하기 좋은 육포, 멸치, 견해산물과 견과, 버섯, 전통주, 오일, 한과, 차, 발효간장, 홍삼, 건강기능식품 등 전통적이고 색다른 기프트도 종류별로 다양하게 준비했다. 나다운 기자

## 광주은행, 설 명절 중기 특별자금 6천억 지원

원자재 구입·긴급결제 자금 업체당 지원한도 최대 30억

광주은행은 오는 2월 28일까지 설을 앞두고 자금 수요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총 6000억원 규모의 ‘설 명절 중소기업 특별자금’ 지원에 나선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특별자금은 경기 침체가 장기화됨에 따라 활력을 잃어가는 지역 경제에 힘을 불어넣기 위해 편성됐으며, 노무비나 체불임금 지급, 원자재 구입자금, 긴급결제자금 등 업체의 요청을 신속히 반영해 지원할 예정이다.

총 지원 규모는 신규자금 3000억원과 만기연장 3000억원이며, 업체당 지원한도는 최대 30억원 이내다. 신규자금에 한

해 산출금리 대비 최대 연 1.5%p(포인트)를 우대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광주은행 우성이 여성전략부장은 “이번 설명절 특별자금대출 지원으로 지역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며 “앞으로도 지역민이 필요할 때 유용하게 쓰일 수 있도록 발 빠른 금융지원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은행은 매년 설과 추석 명절에 유동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에게 특별자금 지원을 비롯한 신속한 금융서비스 제공으로 지역밀착경영을 실천하고 있어 지역민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최권범 기자